이승훈·이상화 건재

빙속 평창 기다려진다

김보름·김태윤 '쑥쑥'

왼쪽부터 이승훈, 김보름, 김태윤, 이상화 선수.

지난 14일 러시아 콜롬나에서 열린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매스스타트 참가 선수들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ISU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 성과

이상화 女 500m·이승훈 매스스타트 우승

女 매스스타트 김보름 월드컵 金 이어 은메달

김태윤·청소년올림픽 金 김민선도 기대감

'소치 올림픽의 아쉬움을 잊어라! 이제는 평창 올림픽이다!'

15일 폐막한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남녀 대표팀은 '빙속여제' 이상화(스포츠토토)의 여자 500m 금메달과 '장거리 간판' 이승훈(대한항공)의 남자 매스스타트 우승이라는 큰 성과물을 얻었다.

종목별 선수권대회는 올림픽과 똑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만큼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들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버금가는 인정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이상화와 이승훈은 각각 여자 500m와 남자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2018 평창 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우뚝 섰다. 이상화와 이승훈의 큰 그림자에 가린 '평창 유망주'들도 시선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하다.

여자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보름(23·강원도청)과 남자 500m에서 6위에 오르며 아쉽게 메달권에서 벗어난 김태윤(22·한국체대)이 주인공이다.

김보름과 김태윤은 나란히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올림픽 데뷔전'을 치렀지만 하위권으로 밀리며 팬들에게 존재감을 호소하지 못했다. 김보름은 팀추월의 일원으로 참가했지만 최하위의 고배를 마셨고, 김태윤은 1,000m에 출전해 40명 가운데 30위에 그쳤다. 올림픽 데뷔전에서 세계무대의 벽을 제대로 실감했지만 두 사람은 평창 올림픽을 빛낼 유망주로 쑥쑥 성장하고 있다.

'장거리 전문' 김보름은 평창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스타트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매스스타트는 2014-2015 시즌부터 월드컵 시리즈에 포함돼 아직 세계 1인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치러지는 종목이다.

김보름은 이번 시즌 월드컵 1차 대회에서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따내며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2차 대회에서 허리를 다치는 통에 3, 4차 대회를 건너뛰었다. 하지만 아직 부상 부위의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종목별 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 '평창 메달 유망주'라는 타이틀을 따냈다.

남자 단거리 유망주 김태윤 역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모태범(대한항공)의 뒤를 이을 재목이다.

2014년 처음 태극마크를 단 김태윤은 그해 소치 올림픽 멤버로 뽑힐 만큼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시즌 허리와 무릎 부상 때문에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김태윤은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 남자 500m에서 한국 선수로는 가장 높은 20위에 오를 정도로 급속하게 기록을 단축시키고 있다. 아직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기록차가 크지만 남자 500m 한국 기록(34초20)에 바짝 다가선 34초59까지 찍으며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김보름과 김태윤 뿐만 아니라 2016 릴레함메르 청소년동계올림픽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민선(서문여고)도 '리틀 이상화'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쑥쑥 성장하고 있어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남녀 대표팀에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세돌-알파고 대결 딥 마인드 직원이 '손' 역할

〈인공지능 바둑 컴퓨터〉

대결 형식 22일 발표…이세돌 5전 전승땐 상금 12억

바둑은 두 사람이 눈으로 바둑판을 보고, 머리로 수를 써서 손으로 바둑알을 놓으며 겨루는 종목이다.

이세돌 9단은 이런 대국 방식으로 세계 바둑계를 호령했다. 그런 이세돌 9단에게 컴퓨터인 '알파고'(AlphaGo)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세돌 9단은 이 도전을 받아들여 다음 달 9일부터 한국에서 알파고와 5번기를 펼치기로 했다. 이세돌 9단이 5판을 모두 이기면 100만 달러(약 12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사(社)가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인간의 두뇌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은 있지만, 손이 없어서 바둑알을 놓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세돌 9단이 사이버 바둑 게임처럼 마우스로 클릭하며 바둑을 둬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방식과 장소에 대해 구글은 오는 22일 한국기원에서 발표하겠다고 15일 공지했다.

일단은 모든 대국을 유튜브에서 생중계한다는 정도로만 알려졌다. 그러나 알파고가 인간 프로기사와 겨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세돌 9단과의 대국 방식도 이전 대국의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알파고는 작년 10월 유럽바둑 챔피언 출신인 중국계 프로기사 판후이 2단과 5번기를 벌여 5판을 모두 이겼다. 인공지능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기사와 대등하게 경기해 승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사건은 세계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에 지난달 28일 게재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알파고와 판후이와의 대국에는 영국 바둑협회 간부인 토비 매닝이 심판으로 배석했다.

딥마인드는 보통의 바둑 대회와 다를 바 없이 최대한 자연스러운 대국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즉, 바둑판 위에서 두 사람이 마주 보고 대국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컴퓨터로 두는 바둑은 바둑판에서 두는 바둑과 똑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딥마인드의 직원이자 영국바둑협회 회원인 아자 황 5단이 알파고의 '손' 역할을 했다. 아자 황 5단은 작은 모니터를 보면서 알파고가 원하는 자리에 바둑돌을 대신 놓았다. 그리고 판후이가 놓는 수를 컴퓨터에 입력하며 '눈' 역할도 대신 했다.

바둑 경기답게 시간제한도 설정했다. 알파고와 판후이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5번의 대국을 펼쳤다. 오전은 공식 경기, 오후는 비공식 경기였다. 오전 경기는 제한시간 각자 1시간에 30초 초읽기 3회씩 주어졌고, 오후 경기는 제한시간 없이 30초 3회의 초읽기 규칙만 있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대국의 시간 규정은 판후이 때와 다를 수 있다. 구글과 한국기원은 철통 보안 속에서 세부 규칙을 협의하고 있다.

이세돌 9단은 인간의 자존심을 걸고 알파고의 도전을 받아들였고, 딥마인드는 알파고로 인공지능 발전의 이정표를 찍으려는 목표가 있다. 그만큼 어느 한쪽만 불리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초단위 시간 규정을 설정해야 한다.

대국은 3월 9일 제1국을 시작으로 10일 2국이 이어지고, 3국은 12일, 4국은 13일, 5국은 15일 차례로 열린다.

/연합뉴스

KIA 日 캠프 연습경기 TV 생중계

19일 삼성전 등 4경기

'오키나와 리그'를 TV로 볼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SPOTV와 함께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 중인 6개 구단 KIA, 삼성, 넥센, SK, 한화, LG의 경기를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계는 오는 17일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아카마볼파트에서 열리는 한화와 삼성의 경기를 시작으로 해 총 13경기가 편성됐다. 2월26일과 3월1일에는 SPOTV와 SPOTV2 채널에서 두 경기가 중계된다. 경기는 모두 1시에 시작된다.

KIA의 경우 삼성(19일), SK(26일), 한화(27일), 넥센(3월1일)과의 4경기가 편성됐다.

한편 강행군을 이어왔던 KIA는 15일 오후 훈련으로 페이스를 조절한데 이어 16일 휴식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17일에는 기노완 구장으로 이동해 요코하마를 상대로 스프링캠프 세 번째 연습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대학생 마케터 모집

KIA 타이거즈가 제12기 대학생 객원 마케터를 모집한다.

KIA 타이거즈를 사랑하는 팬 중 홈에서 열리는 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4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KIA 구단 홈페이지(www.kiatigers.c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은 뒤 이메일(lovekiatigers@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KIA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객원 마케터는 홈경기 실습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실무를 익히게 되며 구단 마케팅 분야별 각종 아이디어 제안 등 제시된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객원 마케터에게는 프로야구가 열리는 전국 모든 구장을 출입할 수 있는 AD카드와 함께 유니폼(상의)과 모자가 지급된다.

문의 070-7686-8044.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